



大韓地理学会篇

〈國際地理学联合会 韓國委員会 포함〉

大韓地理学会는 解放과 더불어 그 創立을 보았다. 해방직후의 사회혼란과 6.25동란으로 創立직후부터 오랜 진통 끝에 1970년대에 들어서서야 약진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1. 学会의 창립과 混亂期(1945~1954년)

해방을 맞은 우리 사회는 여러가지 할일이 山積하여 있었으나 그 중에도 오랜 세월 抹殺되어 온 우리 文化를 되찾는 일이 급선무이었다. 1945년 9월에 豊文女子中學校에서 열린 全國教育者大會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가 토의되었는데 여기에 모인 地理關係人이 중심이 되어 朝鮮地理学会의 창립을 보게 되었다. 즉, 당시의 中東中學校에서 1945년 9월 11일 軍政官의 입회하에 21명의 창립회원이 朝鮮地理学会를 발족하고 회장에 金道泰(당시 서울女商 교장)를 추대하고 간사로서 陸芝修, 李鳳秀, 朴周燮, 柳洪烈, 李富星, 盧道陽 諸氏를 호선하였다.

동년 10월에는 첫 사업으로 韓國地理 教授要回을 작성할 뿐 아니라 1947년 4월에는 景福中學校에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고 학회 부회장으로 陸芝修씨를 추대하였다.

1949년 11월에는 朝鮮地理学会를 大韓地理学会로 개칭하고, 1950년 4월에는 새로운 간사에 朴魯植, 李鳳秀, 金相昊 諸氏를 뽑아 学会活動의 기초가 마련되던차에 6.25動亂이 발발하여 사실상 학회활동은 정지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당시에 地理学의 전문인을 양성하는 4년제 대학으로는 1946년에 설립된 서울大學校 사범대학 地理学科, 1947년에 설립된 慶北大學校 사범대학 地理学科, 1951년에 설립된 梨花大學 社會生活科가 있었을 뿐이며, 前者에는 崔福鉉, 李智皓 교수, 後者에는 洪慶姬, 姜錫午 교수가 後學 양성에 선구적 역할을 한 것이다.

2. 학회활동의 여명기(1955~1969년)

休戰은 이루어졌으나 서울은 아직도 전쟁의 상처가 미처 아물지 않는 상태에서 1955년 10월에 학회총회가 당시의 서울中學校에서 열렸다. 새로운 회장에 崔福鉉(서울師大)교수가 추대되

고, 부회장은 陸芝修 교수가 유임 되었으며 幹事에는 洪始煥, 朴魯植, 金蓮玉, 崔興俊, 姜大玄 諸氏로서 한층 젊은 세대가 활약함에 이르렀다.

1) 여명 제 1기(1955~1962年)

학회의 여명기가 오랜동안 계속된것은 동란으로 인한 회원의 분산과 연구환경의 不備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1963년을 転期로하여 그 이전과 그 이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체제를 갖춘 최초의 학회지가 발간된것이 1963년이기 때문이다.

여명 제 1기는 어려운 국내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회활동이 매우 약진적이었다. IGU (國際地理学 联合会) 極東地域 會議가 1957년 東京에서 열렸는데 이에 崔福鉉, 朴魯植, 陸芝修, 金相昊, 洪慶姬 諸氏가 당시 학회의 중진을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1958년에는 國際聯合아시아 極東地域 地圖會議가 역시 東京에서 개최되어 당시의 학회장인 李鳳秀, 文教部 偏修官이었던 崔興俊 氏가 참석하였다.

또한, 1960년 8 월에는 IGU총회가 스톡홀름에서 열렸는데 이에 金庚星 회원이 참석하여 大韓民國을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 시켰으며 北韓을 압도한 우리 학회의 큰 승리라고 볼수 있다.

이 시기의 학술활동으로는 매회기(春秋)마다 6명 이상의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는 사상 최초로 논문집 “地理”가 활판본으로 간행될 뿐 아니라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한 新學徒가 서울大學에서 3명, 慶北大學에서 2명 배출되고, 美國에서 정식 地理學 博士課程을 이수한 李廷冕, 李燦 氏의 귀국으로 학회활동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여명 제 1기의 활동중에 매우 고무적인 활동으로서 “地理學 세미나”가 있었다. 美國에서 귀국한 양인을 주축으로 姜大玄, 韓仁洙, 秋誠求, 那基柱는 매월 최종 토요일에 지리학도들의 모임을 소집하고 논문발표와 토론을 주선하였는데 5.16革命 이후 중단되었다.

1961년에는 陸芝修 교수가 太平洋 學術會議,

1962년에는 李廷冕 교수가 IGU 東南아시아 地域會議에 참가했으며, 李鳳秀 회장에 이어 새 회장에 朴魯植 교수가 추대되었다. 새로운 會則에 따라 집행부에는 總務, 研究, 教育, 出版의 4개 부장과 간사가 따르게 되고 연구발표와 학회지 간행 및 국제회의의 대표과전 등을 주선함에 이르렀다.

2) 여명 제 2기(1963~1969年)

朴魯植 회장과 당시의 학회 집행부는 학회지 제명을 “地理學”으로 定하고 편집위원에 姜大玄, 申鉉德, 李廷冕, 李燦, 那基柱를 위촉하여 학회사상 최초의 기관지를 제작하는데 성공했다. 이것이 1963년 7 월이며, “地理學” 제 1호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실로 해방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제 1호에는 金相昊의 “濟州島 地形”, 姜大玄과 李漢淳의 “韓國 都市”, 李燦의 “稻作”, 李廷冕의 “航空寫眞”, 盧道陽과 徐樹仁의 “八域誌”, 那基柱의 “韓國古地圖”에 관한 연구논문이 실려있다.

당시의 학회사정은 매년 학회지를 간행할 수 있는 재정적 형편이 못되어 제 2호의 간행은 1966년 5 월에야 빛을 보게 되었으나 매회기마다 발표논문은 끊이지 않아서 여명 제 2기에 발표된 논문 편수는 무려 54편에 이른다. 54편의 논문을 전공영역별로 분류하면 경제지리 분야가 13편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지리교육 및 방법론이 10편, 都市와 地形 분야가 각각 6 편, 地誌가 4 편, 文化, 歷史地理 및 氣候學, 政治地理 분야가 각각 3 편, 應用地理와 村落地理 및 人口地理 분야가 각각 2 편으로 되어있다. 결국 매년 평균 약 8편의 논문이 발표된 셈이다.

1964년에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된 李智皓 教授, 1968년에 추대된 姜錫午 교수는 전과 다름 없이 연구발표회의 주선과 학회지 간행에 주력하면서 회원의 底辺擴大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지방회원의 참여가 현저히 많아졌다. 그러나 1970년 이전까지의 회원수는 150명 내외로서 학회비가 유일한 財源인 때문에 150명의 지리학 인구는 재정의 부족을 면할수 없었다.

여명 제 2기의 특기할 사항으로는 국내의 國

際學位 취득자가 수명 탄생한 점이다. 陸芝修教授는 1963년에 慶北大學校에서 名譽經濟學博士를 받았으나 1967년 60세를 일기로 서거하셨고, 金相昊 교수는 서울大學校에서 文博을 朴魯植 교수는 慶熙大學校에서 理博을, 洪慶姬 교수는 慶北大學校에서 文博을 받았다.

한편, 대학의 지리학과도 서울師大, 慶北師大, 梨花大學 이외에 1958년에는 서울文理大와 慶熙大學, 그리고 1960년도에는 公州師大와 建國大學, 1963年後에는 慶北文理大와 首都師大, 1969년에는 東國大學에 창설을 보게되었다.

1968년 12월에는 인디아의 뉴델리에서 21차 IGU총회가 열렸으며 李燦, 李廷冕, 金蓮玉 회원이 이에 참가했다. 1969년에는 大韓地理學會가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에 가입되었고, 연구발표에 있어서도 自然地理, 人文地理, 地理教育으로 나누어 분과별로 행하게 되었다.

3. 學會活動의 성장기(1970년~현재)

학회활동도 國力과 함수관계가 있는것 같다. 1970년 이후, 우리의 경제는 유례없는 고성장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해외에 미치는 國력도 顯著하여, 이같은 현상은 우리 학회의 國內의 활동에도 즉각 반영되었다.

大韓地理學會는 1970년부터 宗新회원제를 채택할 뿐 아니라 日本과 美國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는 회원을 학회의 中堅으로 기용하며, 地理學의 응용분야에 적극 참여할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춘추 연구발표회에 있어서도 古地圖·古文獻·各種 研究資料의 전시회를 겸하게 되었으며 姜錫午 회장과 盧道陽 회장(1970~1972년)을 거쳐 1973년까지는 학회지 간행도 년1회의 정기간행이 실시되었다.

1970년대 이후를 학회의 성장기로 보는 이유는 ① 李燦 회장(1972~'76년)과 那基柱 회장(1976~현재)으로 이어지는 기간에는 학회지 간행이 년 2회로 확대되었고, ② 발표논문의 질에 있어서도 日本, 美國, 獨逸, 프랑스에서 수료한 신진과 國內 각대학원 교육의 정상화에 의해서 배출된 신진의 참여로 한결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③ 회원수에 있어서도 1960년대에 150

명 내외이던 것이 1970년대 초에서 중반까지 300명 내외, 1979년 현재 560여명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972년 8월 몬트리얼에서 개최된 IGU 총회에 李智皓, 李廷冕, 李琦錫 회원이 참석했으며, 1975년 추계학회에서는 학회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움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회장의 기조연설(李燦)을 비롯하여 地形學 분야(朴魯植, 朴東源), 氣候學 분야(金蓮玉), 都市 및 村落 분야(姜大玄), 經濟地理 분야(那基柱), 文化 및 歷史地理 분야(盧道陽, 張保雄), 地理教育 분야(鄭璋鉉), 應用地理 분야(趙東奎)로 나누어 논문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그 결과는 "地理學" 제13호에 "地理學 3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하에 출판되었다. 이것이 곧 학회창립 30년의 총 결산인 것이다.

1970년대의 韓國 地理學界에서 특기할만한 변화는 ① 해외유학생의 급증, ② 학회 고정자산확보를 위한 모금운동, ③ 대학 지리학과와 대학원 지리학과와의 신설, 증원 및 전문적 지리학자의 확대, ④ 지방학회의 개최 및 지방학회의 확대, ⑤ 발표논문의 질적, 양적 향상, ⑥ 국제적 교류 증대, ⑦ 학회운영 세대의 교체, ⑧ 지리학관계 전문지의 대학별 간행 등에 있다 할 것이다.

현재 大韓地理學會 회원 중에는 日本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4명, 美國이 5명, 獨逸이 1명, 프랑스가 2명으로 되어있고, 國內학위 취득자는 6명이다. 타학계에 比하면 결코 많은 수는 아니나 현재 해외에서 학위과정을 밟고있는 수는 美國이 10여명, 日本이 4명, 독일이 1명, 프랑스가 1명, 國內가 10여명으로 장차 학위 소득자는 급증할것으로 예상된다.

학회회원이 증대됨에 따라 학회의 고정기금도 상당히 축적되었고, 1980년대에는 기금의 범정일자만으로 학회지를 간행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979년 현재 회원 총수는 565명, 이 중에 宗新회원이 40여명, 외국인 회원이 10여명, 대학회원이 18개교에 이른다.

대학의 學部에 지리학과가 설치되어 있는곳은 서울社會大, 서울師大, 慶熙大, 東國大, 建國大,

梨花大, 世宗大, 誠信女師大, 祥明女師大, 清州大, 清州女大, 關東大, 公州師大, 慶北師大, 慶北文理大, 효성女大, 釜山女大, 全南大, 全北大, 韓國社会事業大의 20개교에 이르고, 대학원 지리학과로는 서울대의 社会大와 師範系 대학원을 비롯하여, 東国大 (A) 일반대학원, (B) 교육대학원, 慶北大 (A)(B), 高麗大 (B), 誠信女大 (A), 建国大 (A), 慶熙大 (A)(B), 祥明女大 (A), 梨大 (A)(B), 清州大 (A)의 15개소에 이른다. 이것은 동시에 지리학 전문인의 양적 증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大韓地理学会는 1977년 추계대회부터 사상 최초로 지방대학 주최의 대회를 열었으며, 1977년의 대구를 이어 1978년 추계에는 부산대회를 열므로서 지방회원을 100여명 흡수하였다.

春秋学会의 발표논문 (1970년 이전과 이후)

專門分野	발 표 논 문		專門分野	발 표 논 문	
	1969년 까 지	1970년 이 후		1969년 까 지	1970년 이 후
地 形	6	22	文化·歷史	3	4
気 候	3	11	政 治	3	4
經 濟	13	29	地 誌	4	1
都 市	6	14	教育·方法	10	3
村 落	2	13	応 用	2	2
人 口	1	4	其 他	·	6

大韓地理学会는 국제적 교류도 활발하여졌다. IGU (國際地理学 联合会) 총회에 대표과전은 물론이고, 그동안 韓國을 다녀간 저명 학자로는 B. McCune (前 美国地理学 会長), P. Gosling (미시간大学 교수), 多田文雄 (前 日本地理学会 会長), R. Pitts (하와이大学 교수), J. Delvert (솔본느大学 교수), F. Guilcher (솔본느大学 교수), A. Doumenge (몽펠리에大学 교수), 矢澤大二 (日本地理学会 会長), J. Denis (벨기에地理学会 会長), 吉川虎雄 (東京大学 교수), W. Manshad (IGU 사무국장), 木内信義 (IGU 副会長)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1970년대부터는 학회를 운영하는 세대도 매우 젊어져서 회장을 비롯한 집행위원이 거의 40대로 교체되어있다.

大韓地理学会에 가입되어있는 대학회원은 총 18개교인데, 이중에 6개교가 별도의 지리학논문을 간행하고 있다. 가장 오랜 것으로는 梨大의 “綠友會報”를 비롯해서 서울大学 사회계열의 “지리학 논총”, 서울師大의 “地理와 地理教育”, 慶熙大学의 “応用地理”, 世宗大学의 “君子社会”, 清州大学의 “上賞地理”가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곧 韓國의 지리학이 바야흐로 약진의 길을 힘차게 내어딛고 있음을 표징하는 것이다.

